

2020년 8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매물 소화 과정 속 종목 차별화 지속

부정적인 가이드스 발표 기업 Vs. 주식 분할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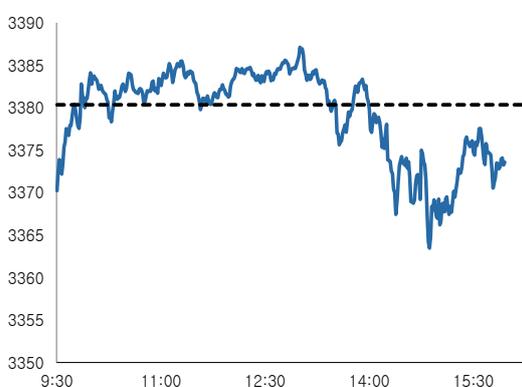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개별 기업 이슈의 영향

미 증시는 추가 부양책 난항, 중국과의 마찰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 그러나 일부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 및 양호한 고용지표에 기반해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하는 등 보험권 등락을 보임. 다만, 장 후반 그동안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이 반납하거나 하락.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일부 대형 기술주, 소프트웨어는 강세 (다우 -0.29%, 나스닥 +0.27%, S&P500 -0.20%, 러셀 2000 -0.22%)

미 증시는 ①추가 부양책 ②미-중 마찰 ③상품시장 변동성 ④경제지표 ⑤개별 기업 이슈에 의해 변화.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난항이 이어지고 있음.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과 견해차가 여전히 크고 협상 일정 또한 잡혀있지 않다고 주장. 커들로 위원장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더 많은 부양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 대체로 백악관은 행정명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추가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 미-중 마찰도 확대되는 경향. 폼페이오는 거래 금지 대상이 틱톡과 위챗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주장해 15 일 무역 합의 이행 회담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임. 이 결과 금, 은, 구리 등 상품선물시장의 급등락을 야기 시켜 시장에 영향

한편,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96.3 만건으로 팬더믹 이후 처음으로 100 만건을 하회. 한때 600 만건을 넘는 등 팬더믹으로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 되었으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경향. 물론 여전히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였던 66.5 만건을 넘는 등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아 부담은 지속. 개별 기업 이슈도 영향을 줬는데 시스코 시스템(-11.18%)은 실적 발표에서 고정 지출 감소로 주당 순이익은 개선 되었으나 향후 전망을 수요 감소에 기반해 하향 조정한 점이 부담이 되며 급락. 마이크론(-4.83%)은 도이체 뱅크가 공급과 수요 부진을 이유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하며 반도체 관련주의 부진을 촉발. 물론 애플(+1.77%)은 디지털 서비스 강화 및 회사채 발행에 따른 자사주 매입 기대가 높아져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437.53	+0.21	홍콩항셍	25,230.67	-0.05
KOSDAQ	854.77	+1.08	영국	6,185.62	-1.50
DOW	27,896.72	-0.29	독일	12,993.71	-0.50
NASDAQ	11,042.50	+0.27	프랑스	5,042.38	-0.61
S&P 500	3,373.43	-0.20	스페인	7,250.50	-0.62
상하이종합	3,320.73	+0.04	그리스	637.27	+0.36
일본	23,249.61	+1.78	이탈리아	20,257.31	-0.8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시스코 급락 Vs. 애플, 테슬라 강세

시스코시스템즈(-11.18%)는 고정 지출 감소로 인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고가품 위주의 품목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자 급락했다. 차량 공유 회사인 리프트(-5.37%)는 급감하자 하락했으며 경쟁사인 우버(-1.23%)도 약세를 보였다. 마이크론(-4.83%)은 도이체 방크가 수요 부진을 이유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하향 조정한 여파로 부진했다. 인텔(-1.28%), 브로드컴(-1.26%), 퀄컴(-2.06%) 등도 마이크론 영향과 미-중 마찰 우려 속 낙폭을 키웠다. JP모건(-0.55%)등 은행주는 금리 상승 불구 총당금 상향 해야 한다는 S&P의 발표로 하락했다. 엑손모빌(-2.45%), 코노코필립스(-2.47%) 등 에너지 업종은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4.26%)는 주식분할 이슈가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NVIDIA(+0.02%), 아마존(-0.04%), 넷플릭스(+1.23%), 치포슬 멕시코 그릴(+2.93%) 등도 주식분할 이슈로 상승하거나 낙폭이 축소되었다. 애플(+1.77%)은 디지털 서비스 강화 소식과 채권 발행에 따른 자사주 매입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패션 업종인 풋실(+14.22%)은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낙관적인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했다. AMAT(-2.15%)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2%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28%	대형 가치주 ETF(IVE)	-0.75%
에너지섹터 ETF(OIH)	-2.46%	중형 가치주 ETF(IWS)	-0.65%
소매업체 ETF(XRT)	+0.25%	소형 가치주 ETF(IWN)	-0.90%
금융섹터 ETF(XLF)	-0.63%	대형 성장주 ETF(VUG)	+0.43%
기술섹터 ETF(XLK)	+0.04%	중형 성장주 ETF(IWP)	+1.0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6%	소형 성장주 ETF(IWO)	+0.63%
인터넷업체 ETF(FDN)	+0.57%	배당주 ETF(DVY)	-1.01%
리츠업체 ETF(XLRE)	-1.1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5%
주택건설업체 ETF(XHB)	+0.1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3%
바이오섹터 ETF(IBB)	+0.14%	미국 국채 ETF(IEF)	-0.21%
헬스케어 ETF(XLV)	-0.12%	하이일드 ETF(JNK)	-0.47%
곡물 ETF(DBA)	+1.64%	물가연동채 ETF(TIP)	-0.25%
반도체 ETF(SMH)	-0.95%	Long/short ETF(BTAL)	+0.8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4.31	-1.99%	+1.38%	+0.62%
소재	393.35	-0.07%	+1.75%	+3.05%
산업재	651.68	-0.65%	+4.45%	+7.76%
경기소비재	1,186.76	-0.06%	+1.36%	+6.42%
필수소비재	656.96	-0.19%	+1.42%	+4.48%
헬스케어	1,245.90	-0.17%	+0.90%	+2.37%
금융	416.33	-0.61%	+3.23%	+3.76%
IT	2,003.46	+0.04%	-1.36%	+7.13%
커뮤니케이션	197.09	+0.38%	-0.20%	+2.96%
유틸리티	308.43	-0.38%	+0.60%	+3.07%
부동산	221.91	-1.23%	-0.63%	+3.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과정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2%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29%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1,185.16 원을 기록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옵션만기일을 감안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장 마감을 앞두고 변동성을 키우기는 했으나 상승 마감 했다. 특히 변동성 확대는 폼페이오의 중국 앱에 대한 거래 금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자 미-중 마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듯 그동안 펀더멘탈과 증시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유동성에 기반해 상승이 컸다는 점을 감안 자그마한 이슈와 수급적인 요인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주목할 부분은 한국 시각 11 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다. 시장은 전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를 더욱 높인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예상을 하회한다면 이를 빌미로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한국 증시는 이러한 중국 경제지표 결과 및 15 일 미-중 회담 등을 감안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119.1 만건)이나 예상(115 만건)을 하회한 96.3 만건을 기록해 팬더믹 이후 처음으로 100 만건을 하회했다. 4 주 평균은 지난주 133.9 만건 보다 소폭 하향된 125.3 만건을 기록했다.

7 월 미국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3.3% 하락했다.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8%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4.4% 하락했다. 대체로 수입 물가가 예상을 상회해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졌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금, 은, 구리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불구하고 중국과의 마찰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더불어 IEA(세계 에너지기구)가 수요 예측을 하향 조정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IEA 는 여행 수요 부진에 따른 항공유의 수요 둔화로 하루 81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화는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중국과의 마찰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피해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멕시코가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혼조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 만건을 하회하자 상승 출발했다. 여기에 애플이 5 월에 이어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도 국채 수요 감소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실제 30 년물 국채입찰은 응찰률은 12 개월 평균(2.35 배)를 하회한 2.14 배, 간접입찰도 12 개월 평균(63.6%)를 하회한 59.8%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부진했다. 이 영향으로 10 년물 금리가 0.7%를 상회했다.

금은 추가 협상, 미-중 마찰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1.1% 상승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시간 외로 하락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키웠는데 은 가격 또한 6% 넘게 급등을 하다 보합을 보이기도 하는 등 변동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특히 구리 가격의 낙폭이 컸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4% 철근은 0.37%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2.24	-1.01	+0.69	Dollar Index	93.298	-0.16	+0.55
브렌트유	44.96	-1.03	-0.29	EUR/USD	1.1813	+0.25	-0.54
금	1,970.40	+1.10	-4.78	USD/JPY	106.94	+0.03	+1.32
은	27.718	+6.69	-2.40	GBP/USD	1.3055	+0.16	-0.67
알루미늄	1,763.50	-1.32	-0.79	USD/CHF	0.9101	-0.22	+0.03
전기동	6,256.00	-2.74	-3.43	AUD/USD	0.7145	-0.24	-1.26
아연	2,375.00	-1.08	-1.53	USD/CAD	1.3219	-0.21	-0.66
옥수수	338.75	+3.51	+4.63	USD/BRL	5.3643	-1.26	+0.60
밀	506.50	+1.30	-0.34	USD/CNH	6.9502	+0.24	+0.09
대두	899.50	+1.87	+2.45	USD/KRW	1183.30	-0.17	-0.02
커피	118.10	+3.37	-0.71	USD/KRW NDF1M	1185.16	+0.13	+0.0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716	+4.12	+17.97	스페인	0.367	+6.70	+9.00
한국	1.357	-2.30	+5.20	포르투갈	0.394	+7.20	+9.40
일본	0.035	-1.00	+2.30	그리스	1.109	+3.00	+9.50
독일	-0.412	+3.50	+11.90	이탈리아	1.010	+5.00	+8.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